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4차 홍해작전

성령의 불길로 홍해를 가르리라



■ 발대사

가나안을 향한 총진군에 낙오자 없기를

이 중 윤 위임목사

홍해작전은 개인, 가정, 교회, 민족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는 기도작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출애굽할 때에 당면한 홍해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건널 수 있었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는 직면한 위기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1988년에 시작한 홍해작전은 영적 각성과 진정한 헌신을 이루었고 여러교작전, 시온성대행진으로 이어져서 89년에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를 통해 교회갱신과 민족복음화로 그 맥을 이었습니다. 90년에는 21세기를 향한 천국시민생활운동을 전개하여 성령운동, 말씀운동, 선교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웃과 북방선교를 위한 특별기도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미 개교회의 기도운동의 범주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기도운동은 아시아와 유럽뿐 아니라 북방과 세계 곳곳으로 기도의 불길이 되어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교대회의 열매로 아시아 각국에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속속 들어왔으며 김치(KIMCHI) 세미나의 결정체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동구권 복음화 대회를 금년 7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제2차 김치 세미나에 참석하는 중국어권 각 국가에서도 기도가 요원의 불길로 치솟고 곳곳마다 기도의 활화산이 불 타오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금년에는 혼란과 무질서의 악령에 붙잡힌 현대사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신앙질서를 회복하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며 천국시민질서를 실현하고자 제4차 홍해작전을 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차 무시되고 사치와 열락으로 사회는 명멸고 질서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하에서 이번에 전개되는 이 작전이야말로 "주일을 거룩하게, 생활은 검소하게, 질서는 내가 먼저"라는 표어 아래 세상을 향해 또 한 번 도전하는 개혁운동이 될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향도자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시작하는 이번 홍해작전에 모든 충현인은 참석하여 무너진 질서 회복의 초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 은혜와 질서의 이 대열에 함께 진군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6월 6일 제1차 천국시민 총동원의 날

기도회 후 교회 안팎 청소, 교회학교 위한 특별 행사 마련

제4차 홍해작전의 승전을 확신하며 진군의 첫발을 내딛는 첫날인 6월 6일을 제1차 천국시민총동원의 날로 정하였다.

먼저 6일 새벽 5시에는 전교인이 총동원하여 새벽기도회를 갖는다. 이날을 시작으로 16일까지 11일 동안 각 가정에서 1명 이상씩 기도회에 참여하고, 천국시민총동원의 날에는 2명 이상씩 참여하여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

족 사회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1차 총동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도의 응답과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섬긴다는 정신으로 기도회 후 아침 7시 30분까지 교회 안팎을 청소하게 된다(구역배정표는 4면 참조).

홍해작전 참모본부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6일 오전 8시 30분에 글짓기, 그림그리기, 표어짓기, 포스타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본당에 집합하여 예배를 드린 후,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은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은 생활표어짓기, 포스터그리기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오늘 저녁 7시에 진군예배

혼란과 무질서의 악령에 사로잡힌 현대 사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천국시민질서를 실현해 나가고자 전개되는 제4차 홍해작전의 진군예배가 오늘 저녁 7시 찬양예배시간에 드러진다.

충현의 성도들은 민족과 교회

를 향한 향도자적인 책임 의식과 내가 먼저라는 적극적인 참여 의식으로 이 진군예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 시간에는 김치(KIMCHI) 세미나 참가교역자의 간증도 있을 예정이다.

김치(KIMCHI) 세미나 5월 28일 개최 중국 복음화의 기틀 마련

지구촌 교회의 영적 갱신과 복음화의 대 사명을 안고 그 동안 국제 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원장 이중윤 위임목사)이 준비해오던 제2회 김치(KIMCHI) 세미나가 28일에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는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6개국에서 모두 60명의 중국어권 목회자들이 등록하였다.

28일 저녁 7시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던 개회예배에서 김창인 원로목사가 설교하였다. 다음날부터 참가자들은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몸으로 체험했으며, 이중윤 위임목사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신학자들로부터 교회 성장



과 영적 갱신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중국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을 협의하고, 성서공회, 총신대학 등을 탐방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31일에는 우리교회 당회원들이 이들을 환영하는 만찬회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오늘 각부 교회학교로 찾아가 간증을 하고 충현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새벽 기도로 뜨거운 충현제단



충현의 가족들은 제4차 홍해작전 진군을 앞두고 제2회 김치(KIMCHI)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중국 대륙 복음화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새벽마다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다.

금번 홍해작전의 기도 운동을 통해 성령의 불길이 우리 교회와 민족, 더 나아가 중국대륙까지 확산되기를 바란다.

제4차 홍해작전 실천강령

1. 신앙 질서 회복

- (1)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지향한다.
- (2)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한 주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
- (3) 예배 시간을 준수하고 교회의 성물과 비품을 소중히 하며 교회의 규례를 숭선하여 지킨다.

2. 창조 질서 보전

- (1)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한다.
- (2) 청결한 사회,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마을, 직장, 거리, 산과 들 어디에서나 숭선하여 청소하고 봉사한다.
- (3)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하고 배격한다(과도한 농약, 산업 폐수, 생태계 파괴 행위, 쓰레기 무단 방출, 공해 요인 배격).

3. 천국 시민 질서 실현

- (1)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법 질서 준수에 앞장서며 사회, 학원, 가정에서 바른 권위를 회복하며 상호 신뢰하는 새 풍토를 건설한다.
- (2) 경제 정의를 확립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한다(불공정 거래, 투기 및 매점매석, 사치, 허영, 낭비 풍토 근절).
- (3) 거리질서를 내가 먼저 준행하고 양보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한다.

홍해작전 및 김치(KIMCHI)세미나 준비 새벽 기도회
설교 요지

야고보서강해

이 중 윤 위임목사

제1일

하나님께 영광을 (1)

(약1:1)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흠어진 열두 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서신은 수신자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우리들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야고보서는 수신자가 특정인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흠어진 열 두 지파”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설교가 토마스 왓슨은 “성경을 하나의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가 당시 교회에 대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썼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게 되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 형제로서, 당시 교인들로부터 사도라고 불리우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하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친 후 야고보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을 보더라도 야고보가 당대 교회의 어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는 그러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비하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가리켜 사도나 대표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영화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현실보다 높이 생각하거나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값어치로 사셨습니다(고전 6:19, 20).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오직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요 15:16).

둘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책임있는 백성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의 일을 내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이기적인 생활 태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였습니다(고전 4:7). 그리고 우리들도 야고보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은 흠어져 있는 중국인들에게 문안하노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2일

하나님께 영광을 (2)

(약1:1)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야고보는 첫째, 예수님을 “주(主)”라고 고백하였습니다. 70인역 성경에는 주(큐리어스)라는 단어가 9천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하셨습니다(마 7:21). 이는 당시 로마인들이 “주”라는 말을 선생, 주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말에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들의 주가 되

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둘째, 야고보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와 같은 말로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마 1:21).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헬라이어)는 메시아(히브리어)와 같은 말로서 기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이후 선지자가 끊어져 4백년 동안 선지자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였

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에는 야고보가 “흠어진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어진 유대인들은 조국을 잃어버린 채 이방인 정복자 밑에서 사단의 손에 눌려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는 희망과 용기와 신앙을 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요 16:33).

사단은 도처에서 우리들을 짓누르며, 곤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흠어진 열두 지파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즉 영적으로 연합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한 연합체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배를 받는 영광스런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벧전 2:9).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으니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요 10:29).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다른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60퍼센트를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는 교회를 향한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형제 관계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모두 열여섯 번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아저씨, 아주머니라는 말처럼 형제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와 같이 입에 붙은 단어로써가 아니라, 영적 관계에 있어서의 형제됨을 확인시키는 말로써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서 섬기는 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형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

제3일

믿음과 시련

(약1:2~4)

사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요 15:17). 사도 베드로도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벧전 1:22).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요일 3:14).

둘째,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련 50장 15절에는 “환난날에 나를 부

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우리들은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 인생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골 1: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시험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단이 우리들을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히 5:8).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려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은 시험이 큰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들이 시험당할 때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은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고, 영적으로 완성에 이르게 하는 기회입니다.

6·25동란 직후 사춘기 동안에 늑막염이란 절고에 시달리면서 정신 건강마저 쇠진하여 지쳐버린 나는 태양별 아래 눈뜨기조차 싫어 그늘진 한 구석에 누워 잠동사나 같은 소설이나 뒤적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둡고, 답답함, 자학과 염세주의의 고달픔에 몸부림치며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의 고통속에서 이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정 뿐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가져보지 못하던 어둡고 침침

추추결해로 불구가 되신 어느 분의 권고와 안내로, 그 당시 설립 1년밖에 안된 충현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충현의 권속으로 성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짜발 같았던 나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봉사도, 충성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뜨거움도 감격도 감사도 없는 인색하고 독선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나의 가치관과 소망관이 전적으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구하였고,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신앙을 한낱 악세사리 정도로 여겼던 잘못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나는 앓은뱅이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믿고,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놀라우

다락방 순례

— 화목을 강조하는 다락방 —

제5교구 안산1, 2다락방

이번 호 주간 충현에서는 제5교구 안산 1, 2다락방 식구들을 찾아 보았다.

교회까지 오는 시간만 거의 3시간이나 걸리는 멀리 떨어진 안산지역이지만 다락방 식구들의 열심은 그 어느 다락방에 뒤지지 않는다. 안산 지역에는 1, 2다락방이 있는데 8세대씩 총 16세대로 식구를 이루고 있다.

제1다락방은 비교적 젊은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2다락방은 심방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모이는데 특성을 살려서 합동으로 연합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연합예배를 드릴 때면 제2다락방 식구들은 제1다락방 식구들의 젊음과 열심을 칭찬하고 제1다락방 식구들은 제2다락방 식구들의 기도, 열심, 신앙의 경륜 등을 자랑스러워 한다.

언제나 한 가족처럼 생활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예배를 드릴 때의 분위기가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 없다고 안산 2구역의 다락방장을 맡고 계시는 김명숙 집사님의 자랑이 대단하다.

그 동안 다락방 모임을 가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온 다락방 식구들의 기도로 한 가족을 구원한 일이었다. 안산구역에 오랫동안 할머니 한 분

이 명예집사님으로 다락방 모임에 참가하셨는데, 1월달에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고 그 집사님의 장례를 다락방 식구들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도우셨다. 그 모습을 본 후 집사님의 자제분이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주변의 많은 이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러한 모습이 어야 하는구나라고 느꼈다.

이렇듯 안산 곳곳에 아름다운 이름을 날리고 있는 안산 다락방 식구들은 찬송에도 열심이어서 특히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제가처럼 늘 즐겨 부르고 있다.

안산 다락방 식구들의 열심은 이번 홍해작전에도 나타날 예정이다. 홍해작전에 늘 참여하고픈 마음은 있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늘 교통편이 여의치 않았는데, 이번에는 안산 다락방 식구들이 모두 힘을 모아 25인승 전세 버스를 대여하여 빠지지 않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락방 식구들간의 화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시는 김명숙 집사님은 이번 홍해작전에서 보여진 이런 안산 식구들의 열심이 다른 다락방에도 자극이 되어서 모두 열심으로 홍해작전에 참가하여 봉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독자의 난

돌짜발이 변하여

박 영 업 권사(제9교구)

한 긴 터널에 갇힌 생활이었습니다.

17세 (고1)되던 여름 어느 누구에게나 이끌리어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일어나며 병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낫는다는 어느 부흥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때 나에게게는 뜨겁게 변화되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민노라 하는 성도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행의 본이 되지 못하였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나에게게는 최고의 우상이었던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대학입시 낙방이 인생의 마지막인양 절규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는 체험을 하게

신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늘의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록 육신은 절그릇과 같아 연약한 부분의 괴로움이 되살아 나는 때도 있지만,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높고 깊으신 사랑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못건디는 증인의 삶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70인 전도대 훈련을 받으며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죄악된 속성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귀하신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계속되는 첫사랑의 회복을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아름다운 결산보고서를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현 동산 부담금 조정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목현리 227번지에 소재한 충현동산의 묘지 조성 부분이 여유가 없어 새로 묘지 조성을 위한 임야 훼손 허가를 받아 묘지조성공사를 수반하게 됨에 따라, 공사비 및

관리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부득이 충현동산 사용부담금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백만원의 받기로 하였다. 다른 공원묘지의 사용 부담금은 최고 2백2십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아리의 합창



정 광 호 장로
(유치부 부장)

주일마다 유치부 어린이들을 만나는 나는 그들의 밝은 표정, 총명한 눈빛을 마주대하며 순진하고 명랑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년초에 어린이를 새로 맡게 되면 어머니의 품을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에게 달려잡니다. 그러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는 의젓하게 예배드리며 자신에 넘치는 행동도 서슴지 않으며, 활발하고 건강하게 변한 모습이 더욱 귀엽게 보입니다. 예배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눈과 귀를 한 데 모으고 잘 듣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손과 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장난하는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운 말씀의 내용을 질문하면 적절히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콩을 담은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밀로 흘러버려도 콩에는 썩이 나고 콩나물로 자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장난치고 어리광을 부리는 것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가정에서는 한 두명의 귀한 자녀를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우므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좋은 것도 독점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동등한 친구들과 함께 공동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친구의 정을 느끼고 선생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며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배워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요람입니다.

학령기 전의 어린이들에게는 주일학교 교육보다는 선생님의 사랑과 친구들의 우정과 같은, 예배이외의 생활 교육을 통해서도 교회와 신앙 생활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이 그 무엇보다 더 즐겁다는 것을 어린 심령들에

게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교회 학교는 어린이들을 담은 콩나물 시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나무도 묘목일 때 똑바로 세워주어야 자라나서 큰 재목이 되듯이, 우리 어린이들도 세상의 온갖 비리와 부정과 술수와 거짓과 위선과 교만의 죄악이 스며들기 전에 겸손과 온유와 정직과 사랑으로 마음속을 바르게 하는 교회학교 교육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자녀들의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녀들을 교회학교로 보내지 않고 주일 낮에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가정이 있는 것을 보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충현교회의 가정마다 자녀 교육에 큰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학교에 보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바른 신앙과 건전한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자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로 모범적인 교회의 신실한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초롱초롱한 얼굴과 열광하는 내 두 눈 속에 가득히 채워넣고 병아리들의 행진을 바라봅니다.

교육의 현장 - 청년3부

충현 청년의 영적 각성을 목표로

교회의 장래를 가늠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교회안의 청년들의 활동을 알아보는 것이다. 주간충현은 이렇듯 교회의 장래를 어깨에 메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교회내의 청년부 가운데서 가장 고참적인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 지도 김창수 목사)를 찾아보았다.

패기의 젊은이들이 모여 활동하는 청년 3부에는 현재 150명 재적에 100여명의 회원이 출석하고 있고 이들 회원들을 아홉 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다. 신입조를 포함해서 모두 열여섯 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 3부는 년 중 다른 청년부들과의 연계를 통해 경로잔치·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제2회 충현청년복음화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다.

청년3부가 91년도에 가장 중

점을 두는 면은 청년3부의 내실을 기하자는 것이다.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영적 각성을 통해 성숙해지는 청년3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회원들과 교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면려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한석연 성도는 청년3부의 활동을 볼 때 거의 모든 회원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관계로 소수의 한정된 회원들만이 일을 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두 힘모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아울러서 청년3부의 특징은 한마디로 '여유'라고 말씀하였는데, 모두들 어느정도 나이가 있어서인지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또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청년3부를 자랑하였다.

충현교회 부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신설

소장에 김용진 박사

당회는 우리 교회 산하에 충현교회 부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소장에 김용진 박사를 임명하였다.

이 연구소는 앞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노인·장애인 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연구하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김용진 박사는 숭실대 사회사



업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 최근 귀국하였다. 특히 김 박사는 우리 교회 구제 사업 전반을 연구, 추진하게 된다.

청년1부

초청전도 집회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는 오늘(2일) 오전 11시 소석관 514호와 매추라기홀에서 "청년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주제 아래 초청전도집회를 갖는다.

이날 전도집회는 송전예배와 새교구 환영회, 전도상 시상, 협시바 중창단의 찬양과 김치(KIM CHI) 세미나 참석 목회자 간증 시간, 친교 및 레크레이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가정부 6일에 계절학교

새가정부(부장 최상규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는 오는 6일(목) 충현기도원에서 최인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주제 아래 91년도 계절학교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계절학교는 흥해작전 새벽기도회에 전 회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새벽기도회와 그날 있을 각종 흥해작전 행사에 참여한 후, 오전 9시에 출발하여 충현기도원에서 영성훈련을 갖고, 다음날 흥해작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끝맺는다.

제12교구 가족 모임

제12교구(교구장 김재명 장로, 지도 신평근 목사, 부지도 최명자 전도사)는 지난 6월 1일 만나홀에서 흥해작전 준비 교구 가족모임을 갖고 전 교구 식구들이 제4차 흥해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자고 다짐하였다.

직원모집

- 직 종: 도서관 사서
- 모집인원: 약간 명
- 자 격: 1. 세례받은 분
2.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경험있는 분
3. 기혼자로 신앙이 독실한 분(여자)
-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사진첨부) 1통
2. 세례교인증명서 1통
3. 자격증사본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 제 출 처: 충현교회 사무국 총무과(전화 552-8200)

전국 무교회 지역에 지교회 설립키로

동산 충현교회 담당목사에 김영일 목사 임명

우리 교회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하루 속히 실현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무교회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해 나가고 있다.

이미 금현교회(경기 여주), 신현교회(강원 정선), 서현교회(강원 인제), 부현교회(강원 인제) 재현교회(경기 연천)을 지교회로 삼아 전도위원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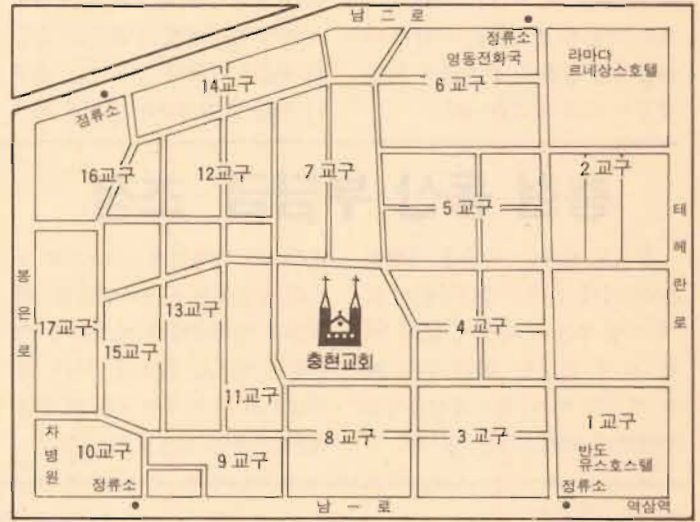
금번 우리 교회는 민족 복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경북 봉화(2곳), 경남 밀양, 전남 영광, 전남 보성, 충북 영동



에 지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 결실로 경남 밀양에 동산충현교회를 설립하고 김영일 목사를 그 담당목사로 임명하였다.

김영일 목사는 55년 출생하여, 충신대, 아세아연합신학 대학원 충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였으며, 8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남전도회



청소 담당 구역

●여전도회

교 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루디아 전도회	본	3 층	2 층	2 층	2 층	2 층	2 층	2 층	2 층	3 층	3 층	3 층	3 층	3 층	3 층	3 층	3 층	3 층
		예배준비실	예배실 가열	예배실 나열	예배실 다열	예배실 라열	예배실 마열	예배실 바열	202호 203호	예 배 준비실 안내실	갈릴리홀 본당계단 전역	본당 3 층부터 4 층계단 전역	예배실 가열	예배실 나열	예배실 다열	예배실 라열	예배실 마열	예배실 바열
마리아 전도회	당	1 층	1 층	1 층	1 층	1 층	1 층	1 층	1 층	1 층	지하1 층	지하1 층	지하1 층	지하1 층	지하1 층	지하1 층	지하2 층	지하2 층
		갈릴리홀 가열	갈릴리홀 나열	갈릴리홀 다열	갈릴리홀 마열	갈릴리홀 라열	나사렛홀 나열	베다니홀 바닥	베다니홀 의자	베들레헬 홀	아멘홀	임마누엘 홀 주변복도	주차장 전역	주차장 전역	주차장 전역	주차장 전역	주차장 전역	주차장 전역
에스더 전도회	소 석 관	1 층	1 층	2 층	2 층	3 층	3 층	3 층	4 층	4 층	4 층	5 층	5 층	5 층	5 층	6 층	7 층	7 층
		102호 103호	109호 107호 주변복도	205호 212호 주변복도	201호 202호 주변복도	314호 301호 302호	307호 308호 309호	310호 303호	414호 401호	402호 403호	407호	507호 508호	509호 주변복도	514호	510호 511호	602호 계단	701호 주변복도	702호 주변복도
하나 전도회	선 교 관	5 층	5 층	3 층	3 층	4 층	4 층	2 층	2 층	1 층	1 층	지하1 층	지하1 층	지하2 층	지하2 층	지하2 층	지하2 층	지하2 층
		501호	504호 505호 506호	305호 307호 308호 복도계단	304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06호 407호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 복도	103호	교 구 간사실 및 복도계단	106호	106호	107호	갈릴홀의 주변복도 계단	매추라기 홀	루터홀	루터홀의 주변복도 계단

●교회들, 뱃바게 광장: 초동 1, 2, 3부

●지하주차장: 초동 4, 5, 6부

●역삼역: 중동부

●선농역, 지하보도(라마다르네상스호텔 앞): 고동부